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1 9·10

사랑하면 보이는, 사랑하면 들리는 아이들의 꿈, 아이들의 이야기

-기쁜우리 지역아동센터-



기쁜 우리 지역아동센터(이하 공부방)은 전남 영광에 있는 아이들의 배움터입니다. 벌써 19년이 되었네요. 2002년 봄, 우리 수녀님 한 분이 방문을 다니던 중, 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더랍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영광성당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주었답니다. 그러다, 마찬가지로, 이를 눈여겨보신 본당 신부님께서 성당 교리실을 하나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방은 2005년 정식 인허가 시설로 등록하였고, 2006년 영광읍내에 있는 가정주택을 개조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그마한 방 4개, 밥도 먹고 놀이도 하는 거실 하나, 늘 복닥거리는 작은 흙 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수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듣겠습니다.

공부방에는 누가 누가...



안녕하세요. 후원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현주 프란체스카 수녀입니다. 공부방에 온지 올해로 3년이 되었네요. 지금 저희 공부방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3명이 있습니다. 저랑 박인옥 마리아 수녀님, 아동복지교사 2분, 급식도우미 한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은 워낙 손이 많이 가서

누가 누가

이 정도 인력으로는 늘 부족한데요, 다행히 방학 때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이번 10월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도움이 좀 된답니다.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공부도 도와주시니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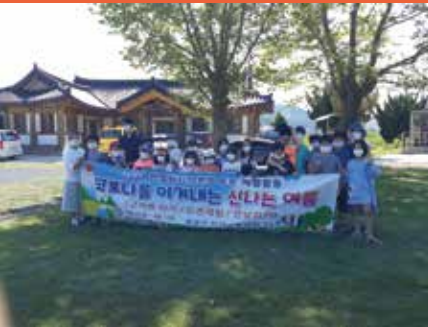
공부방



공부방 운영은...

평일에는 학교 마치고 와서 공부하고 놀다가 오후 5시쯤 저녁을 먹고 6시에 집으로 갑니다.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해요. 작년이랑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가곤 했는데 올해는 그러지도 못했네요. 특히 지난 여름, 물놀이를 못 한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마당이 좀 더 넓으면 이동 풀장을 설치해서 물놀이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럴 여건도 안 되었어요. (전체 인터뷰를 통틀어 ‘물놀이 못했다’는 말씀을 4번 반복하심. 그만큼 안타깝다는...)

특징



우리 공부방 특징은...

아무래도 저희는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마음이 적은 것 같아요. 공동체성이 부족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수요일을 ‘공동체의 날’로 정해서 이 날 하루는 공동체 놀이나 체험활동을 해요. 축구나 배드민턴, 탁구 같은 운동도 하고요. 운동을 하면서 곧잘 다투기도 하는데, 그럴 때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생태교육이나 평화훈련도 계획하고 있어요.

기억



기억에 남는 아이는...

4학년 남자아이였는데요, 체험활동으로 비눗방울 놀이를 했어요. 막대기에다 비눗물을 묻혀서 후~ 불면 예쁜 모양의 비눗방울이 만들어지는 놀이예요. 다 놀고 난 뒤에 비눗물이 반쯤 남은 걸 아이들이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개를 주워 챙기면서 “동생 갖다 줘야지!”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면도 있어서 형이나 동생 챙기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는데, 그 애를 보니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특하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아이들이 마음 모아...

작년에 시리아 난민 어린이 돕기 바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욕을 하면 500원씩 벌금 내기로 자치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이 돈이 좀 모였어요. 절반은 공부방에서 기르는 강아지 간식을 사고, 절반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 돕기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적다 보니 바자회를 해서 좀 더 기부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난민이란 말의 뜻을 잘 몰라요.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힘들게 노동한다는 것도 잘 모르구요. 이런 것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쁨



기쁨과 희망, 그리고...

아이들은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해요. 말썽 피우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날엔 다 잊어버리고 오거든요. 아이들이 주는 새로움, 희망이랄까,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음 날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역시 아이들은 희망, 그 자체예요. 하지만, 간혹 약한 아이를 괴롭히거나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게 돼요. 이런 좋지 않은 것은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 지도하도록 애 쓰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 업무나 서류작업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할 때면 그 아이들이 가진 슬픔이나 아픔이 보여요. 더 예쁜 모습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폭력적인 면이 더 표현되는 거지요. 누구나 다 고유한 기질이나 개성이 있는데, 그걸 잘 다듬고 피어나게 해 주고 싶은데 마음만큼 되진 않네요. 우리 공부방에 와서 더 예쁘고 착한 모습, 그 안에 있는 보물 같은 모습이 더 피어나면 좋겠어요.

수녀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면서, 수녀님과 아이들의 꿈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지닌 사연들, 겉모습 뒤에 감춰진 아픔과 상처, 한계를 넘어 바라보는 가능성과 희망, 이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것

아닐까요. 왁자지껄, 툃툃툃툃, 쫘알쫘알, 깔깔깔...오늘도 '기쁜 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대담: 오현주 프란체스카 수녀님

정리: 이영주 스텔라 수녀님

하느님을 닮은 우리

최남주 베로니카.fmm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봅니다. 후원회원 대부분이 우리 수녀님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시고, 그 분들을 통해 연결된 또 다른 가족들이 계시고, 우리 수도회의 영적가족들도 여러 분 계시고, 영적가족들을 통해 우리 수도회를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의 양성과 사도직을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우리 수도회의 또 다른 가족인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FMM)의 한 회원으로서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수도회의 정신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신도들의 모임인 'FMM 영적가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 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평신도들이고, 그 중에는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사는 곳도 서로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 아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매 달 한 번 모임을 갖고, 신앙과 삶을 나누고, 수도회의 정신과 교회 가르침을 함께 공부합니다. 온 세상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는 영적가족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게 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흠으로 빚어 만든 조형물을 찍은 사진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수녀님들이나 이미 영적가족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소개로 우리 모임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분들 안에서 영적 생활에 대한 큰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살고 있나 의구심이 생기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에게도 같은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셨을 것이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원의가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보편적 선교,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FMM으로서, 수녀님들은 여러 선교지로 파견을 받아 떠나기도 하고 국제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양성 안의 일치로 살아갑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은 FMM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과 선교를 위한 사도직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영적가족들 또한 평신도 FMM으로서 다양한 삶의 자리와 하는 일, 소속된 지역공동체에 있어 보편성을 드러내고, 조금씩 더 형제자매가 되어가면서 친교를 이룹니다. 직장과 가정, 본당이나 지역 공동체 안에서 맡은 책임과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자신을 내어주고, 어려움을 견디고, 기도하는 것으로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우리 수도회에 맡겨진 사명을 중심으로 수도공동체와 영적가족들과 후원회원들이 협력하는 것이 인류를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청 공동체 성심원 진출 50주년

김성래 치릴로 마을 이장님 축사

올해는 산청 공동체가 성심원에 진출한지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센인들과 함께 지내온 그동안의 시간에 감사드리며 7월 20일 성심원 가족들과 함께 감사 미사를 드렸습니다. 김성래 치릴로 마을 이장님께서 산청 공동체 수녀님들을 위해 축사를 준비해 오셨고, 그 글을 이곳에 나눕니다.



마리아 전교자 프란치스코회의 성심원 진출 5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이 자리에 주민대표로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랜 세월 한센병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냉대로 인하여 가족과 단절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아픈 몸에서 오는 고통보다 더 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견디며 살아온 환우들에게 가족보다 더 살뜰히 보듬어준 수녀님들은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한분 한분의 헌신과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 대접 받고 사는 성심원 가족들의 평화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지난 수십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며 주님 사랑의 현존이 함께 가꾸어온 성심원 동산에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세월을 동거동락하며 함께 해주신 수녀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경외를 표합니다.

수녀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수 있길 바랍니다.

성심원 가족들이 보내는 뜨거운 박수로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 후원회원 중에서 하느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 지금 투병중에 있는 김숙자 만나(폐암), 조희공 안젤로(췌장암)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 함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수도회 가족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 매주 첫째 주일은 특별히 저희가 후원회 가족을 위해 미사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7월 1일 ~ 8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검단성당
검암빈첸시오	고대완	고승현	고월순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용회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귀선미리암	김귀선	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철	김도상	김도영	김동현루가
김두환(김철형)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순철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
김영준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원진	김유정	김인회	김잔디	김재식	김재욱	김정숙	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	엘리사벳	김정자	김정주	김정혜(정구충)	김정화	김정연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	김준희	김지혜	김진숙	알데군다	김진식
김춘자	루갈다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혜겸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근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연주	노정애	명영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민행숙	바이올가
박기선	박노성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박성현	박소진
박수인	박순옥	박양순	박연애	박원서	박윤실	박은선	박은정
박재용	박정미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찬주
박해필	박향식	박현희	박화자	박회수	박효정	박희순	방웅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백운달	변복자	변태식
서태진	서현수	서혜석	석상령	성영주	소재록	손순덕	손윤희
송비아(명순)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송혜영
신승일	신유라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승훈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복명	우영희	운남동	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원세경	유경혜	유미경
유복희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주영	유춘성	유혜정
유희숙	프란치스카	윤경숙	윤구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
윤봉수	윤순자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경로	이경석
이광진(홍기원)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성남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성호(조봉례)	이연실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현궁주물)
이윤신	이윤옥	이은미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임수(송재용)
이정숙	마리아	이정숙	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이준우	이지인	프란체스카	이창석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호교	까리파스	이홍식	인용석	인혜정	인후작	은형제	임승옥
임주리	임지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현아	전보민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미화	정미희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재영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향숙	젼마	정현민(문준희)	정혜경
조국제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성자	조정희	조중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	스틸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순애(아네스)	최연희	최영숙	최영호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추상식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	박진	하옥경	한규영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순자	허정자	현경미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승희	홍은숙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홍익기